

2024년 10-2

# KIET 경제·산업동향

2024년 10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록 〉	
2024 美 대선 향방에 따른 자동차 산업 전망 [ KOTRA (2024년 10월) ]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 요약 〉

### □ 해외경제 : 美 연준 완만한 금리 인하 예상, 유럽중앙銀 3번째 금리 인하

- 미국은 9월 실물지표들의 혼조세에도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연준의 완만한 금리 인하 가능성과 11월 초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우려감 고조
- 일본은 8월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유로존은 8월 인플레이 지표의 현저한 둔화 속에 유럽중앙은행(ECB)이 전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
- 중국은 9월 내·외수 지표들의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3분기 성장률이 2분기(4.7%)보다 낮은 4.6%를 기록하면서 中 정책당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관심
- 달러화는 10월 들어 이란-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우려와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3개월 만에 최고치
- 유가는 10월 초에 중동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급등세를 보인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수위 완화 기대, 美 달러화 강세 지속 등 영향으로 하락 전환

### □ 국내경기 : 3분기 실질GDP 성장률 +0.1%, 8월 전산업생산 +1.2%

- 3분기 국내 실질GDP는 설비투자의 대폭 확대 영향에도 소비 약세와 수출 감소 등으로 전기비 0.1% 성장에 그치고, 전년동기비 성장률도 1.5%로 하락
  -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상당폭 증가(전월비 4.1%)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소폭 증가(0.2%)함에 따라 전월비 기준 4개월 만에 증가(1.2%)

### □ 국내금융 : 9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10월 중순(10월 14일 ~ 25일) 금리 강보합 및 원/달러 상승

- 9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대기업 대출의 소폭 증가와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 둔화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주택담보대출의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체 증가세가 둔화

- 국고채(3년) 금리는 10월 초 중동궤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하와 美 국채금리 상승세 등 영향으로 강보합
- 원/달러 환율은 10월 들어 이란-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우려와 연준의 추후 완만한 금리 인하 가능성과 美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등으로 상승

#### □ 산업별 동향 : 8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3.7%, 서비스업생산 +0.9%

- 제조업생산은 1차금속·전자부품·섬유제품·자동차 등에서 감소세를 보인 반면, 반도체·기타운송장비·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3.7% 증가
  - 제조업ICT 등 중공업 생산은 증가세를 유지, 경공업 생산은 감소 전환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을 제외하고, 운수·창고,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소폭 증가(전년동월비 0.9%)

#### □ 고용 : 9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0.5% 증가

- 지난 9월 전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세가 전월보다 약간 더 확대된 반면,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상승(8월 0.4% → 9월 0.5%)

#### □ 수출입 : 9월 수출 +7.5%, 수입 +2.2%, 무역수지 67억 달러 흑자

- 지난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7.5% 증가한 588억 달러, 수입이 2.2% 증가한 521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67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CT 품목을 비롯해 자동차와 선박류 등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차부품·일반기계·철강·등에서 감소하고, 지역별로는 미국·중국·아세안·EU·중동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데 반해, 일본·인도·중남미 등지로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가 전월보다는 둔화(8월 11.2% → 9월 7.5%)

## 1. 해외경제

### □ 미국 : 9월 실물지표 혼조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속도 완만 예상

○ 9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 및 체감지표들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실물경기의 방향성에 관심. 인플레 둔화 등에도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연준의 완만한 금리 인하 가능성과 11월 금리 동결 우려감이 고조

- 산업생산이 광업(전월비 -0.6%)과 제조업(-0.4%) 등의 동반 감소 여파로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0.3%)한 반면에, 소매판매는 주유소(-1.6%)와 전자제품(-3.3%) 등 판매의 상당폭 감소 영향에도 소폭 증가세 유지(0.4%)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고용 약세 영향에도 수주와 생산의 동반 상승에 전월 수준을 유지(47.2)하고, 소비자신뢰지수가 현재 평가지수(124.3)와 미래 기대지수(81.7)의 동반 하락 여파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98.7)
-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비 증가세가 확대(8월 +15.9만 개 → 9월 +25.4만 개)된 반면, 경기선행지수는 7개월 연속 하락세(8월 -0.3% → 9월 -0.5%)
- 인플레 둔화와 실물경기 약세 등에도 고용 호조세의 지속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 11월 금리 동결 우려 고조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1.9	2.5	1.4 (2.9)	3.0 (3.1)	-				
산업생산 (IT생산)	3.4 (6.5)	0.2 (5.7)	-0.4 (0.6)	0.6 (3.7)	-0.2 1.7	0.2 (-1.3)	-0.6 (0.9)	0.3 (1.3)	-0.3 (1.5)
내구재수주	8.2	4.4	-3.3	-1.1	-	-6.9	9.8	0.0	-
소매판매	9.1	3.6	-0.2	0.5	1.3	-0.3	1.2	0.1	0.4
소비자물가	8.0	4.1	0.9	0.7	0.3	-0.1	0.2	0.2	0.2
실업률(%)	3.6	3.6	3.8	4.0	4.2	4.1	4.3	4.2	4.1
무역수지(10억US\$)	-944.8	-784.9	-203.2	-223.2	-	-73.0	-78.9	-70.4	-
ISM 제조업지수 <sup>1)</sup>	53.5	47.1	49.1	48.8	47.1	48.5	46.8	47.2	47.2
소비자신뢰지수 <sup>2)</sup>	104.5	105.4	106.3	98.9	102.1	97.8	101.9	105.6	98.7
경기선행지수 <sup>3)</sup>	115.1	106.3	102.5	101.3	100.1	101.0	100.5	100.2	99.7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 일본 : 8월 실물지표 혼조, 日銀(BOJ) 추가 금리 인상 재고 압력 가중

- 8월 생산 급감과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고, 무역수지는 수출입 증가세가 동반 둔화되면서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 기조 지속. 경기선행지수가 상당폭 하락(전월비 -2.4%)하면서 경기 약세 조짐이 우려됨에 따라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재고(再考) 압력이 점차 가중

###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0	1.9	0.1	-0.6	0.7				
광공업생산	0.0	-1.4	1.1	-5.1	2.7	3.6	-4.2	3.1	-3.3
민간기계수주	5.4	-3.8	-1.3	4.4	-0.1	-3.2	2.1	-0.1	-1.9
소매판매	2.6	5.7	-0.9	0.0	1.8	1.6	0.6	0.2	1.0
소비자물가	2.5	3.3	0.9	0.2	0.8	0.5	0.3	0.2	0.5
실업률(%)	2.6	2.6	2.5	2.5	2.6	2.6	2.5	2.7	2.5
무역수지(10억엔)	-20,330	-9,322	-1,398	-1,767	-1,475	-1,223	219	-634	-703
경기선행지수 <sup>1)</sup>	112.3	109.2	109.4	111.1	110.4	111.0	109.1	109.3	106.7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 중국 : 9월 내·외수 혼조, 3분기 성장률 부진에 추가 경기부양책 관심

- 지난 9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확대된 모습을 보인 반면, 수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내·외수 지표들의 혼조세를 반영. 3분기 성장률이 2분기보다 더 낮은 4.6%에 그치면서 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5% 내외) 달성에 난항이 우려됨에 따라 정책당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관심

###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3.0	5.2	5.3	4.7	4.6				
산업생산	3.4	4.6	5.8	5.9	5.0	5.3	5.1	4.5	5.4
고정투자(누계기준)	5.1	3.0	4.5	3.9	3.4	3.9	3.6	3.4	3.4
소매판매	-0.8	7.8	4.3	2.7	2.7	2.0	2.7	2.1	3.2
소비자물가	2.0	0.2	0.0	0.3	0.5	0.2	0.5	0.6	0.4
수출(달러화기준)	5.6	-4.7	1.1	5.7	6.0	8.5	7.0	8.7	2.4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 유로존 : 8월 생산·소비 동반 증가, 유럽중앙은행(ECB) 3번째 금리 인하

- 8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동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역내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가 현저.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실물경기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10월 정책이사회에서 올해 들어 3번째 금리 인하 단행

###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실질GDP)	3.4	0.5	0.1	0.3	0.2				
산업생산	2.2	-2.1	0.1	-1.3	-0.2	-0.8	0.3	-0.5	1.8
소매판매	1.3	-1.9	0.3	0.0	0.3	0.1	-0.4	0.0	0.2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8.4	5.4	2.7	2.6	2.5	2.6	2.5	2.6	2.2
무역수지(10억유로)	-346.0	55.1	38.2	58.7	45.6	11.4	16.0	13.7	11.0
경제체감지수 <sup>1)</sup>	102.1	96.4	94.8	96.0	95.9	96.2	96.0	96.0	96.6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세 및 유가 약세

- 달러화는 10월 초 이란-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우려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상승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금리 인하와 연준 이사들의 금리 인하 신중론 제기 등으로 추가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
- 유가는 10월 들어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지면서 급등세를 보인 이후, 주요 기관들(IEA·OPEC)의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 하향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수위 완화 기대, 美 달러화 강세 지속 등 영향으로 하락 전환

###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25일
엔/달러	146.92	149.98	151.35	157.80	157.31	160.88	149.98	146.17	143.63	152.31
달러/유로	1.0818	1.0805	1.0790	1.0666	1.0848	1.0713	1.0826	1.1048	1.1135	1.0796
미 국채 (10년만기)	3.91	4.25	4.20	4.68	4.50	4.40	4.03	3.90	3.78	4.24
WTI유	75.9	78.3	83.2	81.9	77.0	81.5	77.9	73.6	68.2	72.0
두바이유	81.2	80.5	86.8	87.6	82.7	84.9	79.5	77.1	72.5	74.1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3분기 실질GDP 성장률 +0.1%, 8월 전산업생산 +1.2%

○ 3분기 국내 실질GDP는 설비투자의 대폭 확대 영향에도 소비 약세와 수출 감소 등으로 전기비 0.1% 성장에 그치고, 전년동기비 성장률도 1.5%로 하락

- 설비투자가 5분기 만에 대폭 증가(전기비 6.9%)한 반면, 민간소비가 0.5% 증가에 그치고, 건설투자가 -2.8%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된 데다, (재화)수출이 -0.6%를 기록하면서 2022년 4분기(-4.1%)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GDP성장률	2.7	1.4*	3.3* (1.3*)	2.3* (-0.2*)	1.5** (0.1**)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4.2	1.8*	1.0* (0.7*)	0.9* (-0.2*)	1.3** (0.5**)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0.3	1.1*	-1.0* (-2.0*)	-2.5* (-1.2*)	6.3** (6.9**)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3.5	1.5*	1.6* (3.3*)	-0.5* (-1.7*)	-4.9** (-2.8**)	-	-	-	-
전산업생산지수	4.6	1.0	2.9 (0.7)	2.1 (-0.3)	-	2.3 (-0.8)	0.5 (-0.1)	2.3* (-0.6*)	1.1* (1.2*)
광공업생산지수	1.0	-2.6	5.9 (-0.3)	4.8 (1.1)	-	4.2 (-0.7)	3.8 (0.7)	5.2* (-3.9*)	3.8* (4.1*)
제조업생산지수	0.9	-2.6	6.2 (-0.5)	5.0 (1.5)	-	4.4 (-0.6)	3.9 (0.7)	5.4* (-4.1*)	3.7* (4.1*)
서비스업생산지수	7.0	3.2	2.1 (0.8)	1.6 (-0.3)	-	2.0 (-0.8)	0.6 (0.3*)	1.7* (0.3*)	0.9* (0.2*)
소매판매액지수	-0.3	-1.5	-2.1 (-0.5)	-2.9 (-0.8)	-	-2.8 (-0.2)	-3.6 (0.9)	-2.2* (-2.0*)	-1.3* (1.7*)
설비투자지수	2.5	-4.9	0.3 (-3.8)	-1.5 (-0.2)	-	-1.4 (-3.6)	-3.3 (3.5)	18.7* (10.2*)	7.8* (-5.4*)
건설기성(불변)	2.8	7.3	4.1 (4.9)	-3.0 (-6.2)	-	-3.2 (-4.6)	-6.0 (-1.5)	-5.2* (-0.7*)	-9.0* (-1.2*)
동행종합지수(2020=100)	108.2	110.2	111.8	111.8*	-	111.6	111.7*	111.2*	111.3*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9	100.1	99.9	99.3*	-	99.1	99.0*	98.3*	98.2*
선행종합지수(2020=100)	108.7	110.9	114.1	115.3*	-	115.2	115.7*	116.0*	116.2*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0.5	99.3	100.3	100.6*	-	100.5	100.7*	100.7*	100.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지난 8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상당폭 증가(전월비 4.1%)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 증가(0.2%)함에 따라 전월비 기준 4개월 만에 증가(1.2%)
  - 광공업생산이 반도체(1.8%)와 자동차(-3.1%)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월비 4.1%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전월에 이어 0.2% 증가
  - 소매판매는 내구재(전월비 0.7%)와 비내구재(0.1%) 판매의 동반 증가에 힘입어 전월비 1.7%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15.4%)의 대폭 감소 여파로 전월비 5.4% 감소하고, 건설기성액(불변)도 감소 지속(-1.2%)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과 수입액 등이 감소한 반면에, 서비스업생산지수와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소폭 상승(0.1%)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장단기금리차와 건설수주액 등이 하락한 반면에, 수출입물가비율과 재고순환지표 등이 상승하면서 18개월 연속으로 상승(0.2%)

#### □ 물가 : 9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1.0%

- 9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2.0%)과 음식·숙박(-0.5%) 등에서 하락한 영향에도 식료품·비주류음료(1.4%)와 주택·수도·전기·연료(1.3%) 등에서 대폭 상승하면서 전월비 0.1% 상승(전년동월비 1.6%,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
- 9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세 유지(전월비 5.3% → 5.3%)에도 공산품 가격(-0.8% → -0.7%)의 하락세와 서비스 가격(0.0% → -0.2%)의 하락 등으로 전월비 하락세 지속(전월비 -0.2%, 전년동월비 1.0%)

####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1/4	2/4	3/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	5.1	3.6	3.0 (0.7)	2.7 (0.3)	2.1 (0.4)	2.9 (0.0)	2.7 (0.1)	2.4 (-0.2)	2.6 (0.3)	2.0 (0.4)	1.6 (0.1)
근원물가	4.1	4.0	2.6 (0.5)	2.1 (0.4)	2.0 (0.3)	2.2 (0.2)	2.0 (0.2)	2.0 (0.1)	2.1 (0.1)	1.9 (0.1)	1.8 (0.1)
생산자물가	8.4	1.6	1.4 (0.8)	2.2 (0.6)	1.7 (0.1)	1.9 (0.3)	2.3 (0.1)	2.5 (0.0)	2.6 (0.3)	1.6 (-0.2)	1.0* (-0.2*)
근원물가	6.3	0.9	1.1 (0.6)	1.9 (0.9)	1.9 (0.0)	1.3 (0.4)	1.9 (0.3)	2.4 (0.1)	2.6 (0.2)	1.8 (-0.3)	1.3* (-0.3*)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 3. 국내금융

#### □ 기업자금·가계대출 : 9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 9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중소기업 대출도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체 기준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  
(2024년 8월 +7.2조원 → 9월 +4.3조원, 대기업 +0.8조원, 중소기업 +3.5조원)
  - 대기업 대출이 일부 기업들의 시설자금 수요에도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
  - 중소기업 대출도 추석자금 및 시설자금 수요 등에도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
- 회사채는 만기도래 규모 확대 등으로 순상환 기조가 지속  
(2024년 8월 -0.5조원 → 9월 -1.3조원)
- CP·단기사채는 일부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순발행 기조  
(2024년 8월 -1.1조원 → 9월 +1.1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비 증가 규모가 소폭 수준  
(2024년 8월 +0.4조원 → 9월 +0.1조원)

####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2		2023		2024				24.9월말 잔액
	1~9월	9월	1~9월	9월	1~9월	7월	8월	9월	
■은행 원화대출	89.9	9.4	67.9	11.3	68.5	7.8	7.2	4.3	1,316.2
(대 기 업)	27.9	4.6	28.2	4.9	27.9	4.4	1.9	0.8	275.7
(중소기업)	62.0	4.7	39.8	6.4	40.5	3.4	5.3	3.5	1,040.5
<개인사업자>	20.1	1.8	7.0	0.8	5.7	0.8	0.8	0.3	584.5
■회사채 순발행	-2.1	-0.6	2.0	-0.8	-0.9	-1.9	-0.5	-1.3	..
■CP 순발행	15.6	-0.4	3.2	2.0	4.6	0.8	-1.1	1.1	60.1
■주식발행	20.2	0.3	6.5	2.9	5.8	1.1	0.4	0.1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

- 9월 국내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된 데다, 기타대출 역시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전월비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  
(2024년 8월 +9.2조원 → 9월 +5.7조원)

- 주택담보대출이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효과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일시적·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4년 8월 +8.2조원 → 9월 +6.2조원)
- 기타대출도 추석 상여금 유입과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감소  
(2024년 8월 +1.1조원 → 9월 -0.5조원)

###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2		2023		2024				24.9월말 잔액
	1~9월	9월	1~9월	9월	1~9월	7월	8월	9월	
은행 가계대출	-1.2	-1.3	21.7	4.8	40.7	5.4	9.2	5.7	1,135.7
■주택담보대출	14.7	0.9	35.0	6.1	46.4	5.6	8.2	6.2	896.8
■기타대출	-16.0	-2.1	-13.1	-1.3	-5.5	-0.1	1.1	-0.5	237.9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

### □ 금리·환율 : 10월 중순(10월 14일 ~ 25일) 금리 강보합·원/달러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10월 초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일시 하락한 이후에 美 국채금리 상승세가 재개되면서 동반 소폭 상승  
(10월 14일 2.938% → 10월 25일 2.882%, -0.06%p)
- 원/달러 환율은 10월 들어 이란-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우려와 중국의 경기부양책 실망감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연준의 추후 완만한 금리 인하 가능성과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美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세  
(10월 14일 1,355.9원 → 10월 25일 1,388.7원, +32.8원)

###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2	2023				2024			
		2/4	3/4	4/4	1/4	2/4	8월	9월	10.25일
국고채(3년)	3.72	3.66	3.88	3.15	3.32	3.18	2.95	2.81	2.88
회사채(3년, AA-)	5.23	4.47	4.64	3.90	3.93	3.66	3.50	3.40	3.45
CD(91일)	3.98	3.75	3.83	3.83	3.64	3.60	3.52	3.53	3.40
CP(91일)	5.28	4.02	4.08	4.32	4.24	4.17	3.62	3.62	3.54
원/달러	1,264.5	1,317.7	1,336.5	1,288.0	1,347.2	1,376.7	1,336.0	1,307.8	1,388.7
원/100엔	953.2	907.0	901.3	912.7	889.5	864.3	921.8	924.5	910.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 4. 산업별 동향

### □ 제조업생산 : 8월중 전년동월비 +3.7%, 전월비 +4.1%

- 제조업생산이 1차금속(-2.9%), 전자부품(-2.8%), 섬유제품(-1.6%), 자동차(-0.1%) 등의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인 반면, 반도체(10.3%)와 기타운송장비(18.4%), 화학제품(3.7%)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3.7%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8.1%) 등 중공업(4.6%) 생산이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경공업(-1.0%) 생산은 2개월 만에 다시 감소
  - 전월비 기준으로 전자부품(-2.4%)과 화학제품(-1.0%) 등 소수 업종을 제외하고 반도체(6.0%), 섬유제품(4.2%), 기계장비(4.5%), 자동차(22.7%), 기타운송장비(7.9%), 1차금속(3.0%)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하면서 4.1%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2.3)는 전자부품, 기계장비, 자동차 등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하락세가 이어진 반면에, 반도체,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 업종에서 상승세가 이어진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0.9% 상승(12개월 연속 상승세)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0.5%로 전월과 달리 4.6%p나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8월중 출하가 증가 전환(-0.9% → -1.1%,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한 반면에, 재고는 감소폭이 확대(-4.5% → -6.0%)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3%로 전월(71.1%)보다 3.2%p 상승

### □ 서비스업생산 : 8월중 전년동월비 +0.9%, 전월비 +0.2%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1.3%)와 숙박·음식점(0.0%)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운수·창고(7.6%), 정보통신(1.0%), 전문·과학·기술서비스(3.2%),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0.1%)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증가세를 유지(0.9%)
  - 전월비로는 도소매(3.0%), 숙박·음식점(4.4%)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4.3%)과 운수·창고(-0.7%) 등에서 감소하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0.5%),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0.3%) 등에서 소폭 증가하면서 0.2% 증가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1.8% 감소, 전월비 기준으로 3.0% 감소

#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2	2023		2024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전월비*
<b>광공업 (원지수)</b>	10,000	109.6	106.8	112.7	107.5	111.5	112.8	109.1	109.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0	-2.6	4.8	5.9	4.8	3.8	5.2	3.8	4.1
<b>제조업 (원지수)</b>	9,532.0	109.8	106.9	113.0	106.9	112.5	113.9	109.5	110.1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9	-2.6	5.1	6.2	5.0	3.9	5.4	3.7	4.1
섬 유	110.6	-1.8	-9.4	-7.8	-6.2	-1.0	-3.4	-1.5	-1.6	4.2
화 학	756.8	-9.9	-9.6	2.1	-2.3	3.3	1.8	5.7	3.7	-1.0
철 강	433.8	-8.4	2.7	19.8	0.4	-8.3	-9.8	-5.1	-2.2	3.9
반도체	1,855.1	5.4	-2.0	34.5	44.7	22.3	26.8	21.7	10.3	6.0
전자부품	517.8	-14.9	-18.7	-3.3	9.1	10.1	7.4	0.8	-2.8	-2.4
컴퓨터	30.0	11.2	-12.4	-17.9	-8.4	-18.5	-15.0	-5.1	-16.7	4.7
통신·방송장비	134.7	-5.2	-4.0	-2.6	-11.6	8.4	9.7	67.1	26.2	-7.1
기계·장비	776.7	0.6	-7.8	-11.8	-4.9	-0.7	-3.9	5.6	0.0	4.5
자동차	1,014.2	9.1	10.2	0.2	-3.2	-0.8	-3.9	-10.3	-0.1	22.7
조 선	76.7	21.0	2.3	-7.3	-7.3	5.3	1.0	22.4	21.9	7.1
- 중 공 업	8,111.7	1.0	-2.0	6.8	7.4	5.8	5.1	6.0	4.6	4.9
- 경 공 업	1,420.3	0.7	-5.9	-4.3	-1.2	0.6	-2.7	2.3	-1.0	0.0
- 제조업ICT	2,537.6	0.5	-5.6	23.4	32.4	18.8	21.6	18.6	8.1	3.7
제조업 생산능력	10,000	-0.5	0.1	2.1	1.6	1.1	0.8	0.8	0.9	0.0
<b>서비스업 (원지수)</b>	1,000	112.3	115.8	121.0	114.0	117.4	119.2	116.7	115.6	-
전년동기비 증감률	-	7.0	3.2	1.8	2.1	1.6	0.6	1.7	0.9	0.2
도소매	192.0	2.7	-0.7	-1.5	-4.0	-2.2	-4.1	-3.1	-1.3	3.0
운수및창고	85.6	18.4	12.5	10.2	12.6	10.5	8.8	8.9	7.6	-0.7
숙박및음식점	49.3	16.9	0.8	-3.6	-1.7	-1.4	-1.0	-3.3	0.0	4.4
정보통신	84.3	1.5	0.0	3.0	6.6	4.4	3.8	5.4	1.0	-4.3
금융및보험	174.9	8.6	6.2	0.2	3.5	2.8	2.7	2.7	-0.3	-2.0
부동산	31.7	8.0	3.2	1.8	2.9	0.7	0.9	1.4	0.3	-2.0
전문·과학및기술	97.2	2.3	1.5	1.7	0.5	1.5	-1.7	4.4	3.2	0.5
사업시설관리 등	51.6	5.3	5.0	5.8	3.4	1.1	-0.6	1.4	0.1	0.3
교 육	69.1	1.2	0.4	0.5	-1.1	-0.6	-0.2	0.4	0.0	-0.6
보건및사회복지	110.6	7.7	3.6	3.6	4.2	1.0	1.6	2.6	2.6	0.9
예술·스포츠및여가	18.1	43.7	6.9	3.4	4.1	4.8	1.2	-0.8	3.4	9.0
협회·수리및개인	23.5	4.4	4.2	3.0	-0.2	1.0	-1.8	1.5	-3.1	0.2
수도·하수및폐기물	12.1	-4.6	-1.6	-3.3	-2.4	-1.4	-5.6	0.1	-2.7	2.7
- ICT서비스업	-	5.3	1.2	3.6	4.2	3.2	5.4	2.8	-1.8	-3.0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 5. 고용

### □ 취업자 수 : 9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0.5% 증가

- 지난 9월 전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세가 전월보다 약간 더 확대된 반면,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상승(8월 0.4% → 9월 0.5%)
  -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전월과 마찬가지로 3개월 연속 감소세(-0.8% → -1.1%, 2023년 10월 이후 최대폭 감소)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도 5개월 연속 감소(-2.4% → -2.6%)한 반면,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0.9% → 1.0%)
  -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감소세(-3.9% → -4.6%)를 보이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역시 4개월 연속 감소세(-0.9% → -1.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2.0% → -2.9%)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정보통신업(9.7% → 10.1%)을 비롯해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7.0% → 6.1%)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1.9% → 3.4%),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2.2% → 2.6%) 등에서 취업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증가세가 확대(0.9% → 1.6%)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5%로 전월과 달리 소폭 상승 전환

###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전 산업	28,089	28,416	28,061	28,838	28,833	28,915	28,907	28,857	28,801	28,842
전년동기비	3.0	1.2	1.1	0.5	0.5	0.3	0.3	0.6	0.4	0.5
농림·어업	4.6	-0.8	-2.3	-1.2	-2.2	-2.0	-2.0	-1.6	-2.4	-2.6
제조업	3.1	-0.9	0.8	1.1	-0.7	0.8	0.2	-0.2	-0.8	-1.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9	1.7	1.3	0.5	1.0	0.3	0.5	0.9	0.9	1.0
건설업	1.6	-0.4	2.1	-1.7	-4.1	-2.2	-3.1	-3.9	-3.9	-4.6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8	1.4	-0.1	0.0	-0.8	0.1	-0.1	-0.5	-0.9	-1.0
전기·운수·통신·금융	3.9	1.8	3.4	3.6	5.8	3.0	4.1	5.1	6.3	6.0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9	2.3	1.2	0.3	1.3	0.1	0.4	1.2	0.9	1.6
실업률 (계절조정, %)	2.9	2.7	2.8	2.8	2.5	2.8	2.8	2.5	2.4	2.5

자료 : 통계청.

## 6. 수출입

□ 9월 수출 7.5% 증가, 수입 2.2% 증가, 무역수지 67억 달러 흑자

○ 지난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7.5% 증가한 588억 달러, 수입이 2.2% 증가한 521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67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CT 품목을 비롯해 자동차와 선박류 등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차 부품·일반기계·철강·등에서 감소하고, 지역별로는 미국·중국·아세안·EU·중동 등 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데 반해, 일본·인도·중남미 등지로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가 전월보다는 둔화(8월 11.2% → 9월 7.5%)

- 수입은 에너지(원유·가스 등) 수입이 감소 전환(-8.0%)하고, 비에너지 수입이 소폭 증가(5.3%)에 그치면서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둔화(2.2%)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1.6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8.5% 하락하고, 도입물량 역시 3.3%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이 11.6% 감소한 약 62억 달러를 기록

###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수출	6,836 (6.1)	6,322 (-7.5)	1,634 (8.1)	1,715 (10.1)	1,738 (10.6)	580 (11.4)	574 (5.6)	573 (13.5)	577 (11.2)	588 (7.5)
수입	7,314 (18.9)	6,426 (-12.1)	1,549 (-11.0)	1,570 (-1.4)	1,600 (6.2)	531 (-2.0)	491 (-7.5)	539 (10.5)	541 (6.0)	521 (2.2)
무역수지	-478	-103	85	146	137	49	83	34	37	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ICT 업종 및 조선·자동차 수출 증가, 차 부품·철강·일반기계 등 감소

○ 반도체 :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 확대 등 전망산업에서의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전월과 마찬가지로 전년비 30%대의 높은 증가율이 지속(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 **자동차** : 조업일수 감소(전년比 -1.0일)와 일부 업체들의 추가 휴무(추석 명절·파업)에도 북미 시장 중심의 하이브리드·내연차 등에 대한 견조한 수요 등에 힘입어 수출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자동차부품** : 전기차 수요 둔화와 對美 중고차 관련 부품 수출 감소,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세
- **선박류** : 선가 상승기(2022년 이후)의 수주물량 인도 지속과 고부가가치 선박(LNG운반선·컨테이너선) 인도 물량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
- **디스플레이** : AI 기능 탑재 신형 IT제품 출시 등에 따른 OLED 수요 지속에도 전년동월의 호실적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세
- **무선통신기기** : 신규 모델 출시 등에 따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수요 개선과 고성능 스마트폰 관련 부품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
- **철강** :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가격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美·EU 시장 중심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8개월 연속 감소)
- **섬유** : 高단가의 추동 제품 시즌 도래 등에도 국내 화섬 생산 감소와 글로벌 가격 경쟁 심화 등의 여파로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제품** : 국내 정유사들의 전년비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 등에도 최근의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7개월 만에 감소
- **석유화학** : 국내 업체들의 신증설 설비가동 확대 등으로 인한 수출물량 증가에도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가격 약세 등 영향으로 수출이 6개월 만에 감소
- **일반기계** : 미·중동 시장 향 수출 감소와 글로벌 건설경기 둔화, 전년비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세
- **가전** : AI 스마트가전 관련 수요 지속에도 미국 등 주요 시장들의 수요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세



- 컴퓨터 :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루어지는 주요 수출시장(미국·EU 등)의 수요 확대와 기업용 SSD 중심의 가격 상승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출이 2개월 연속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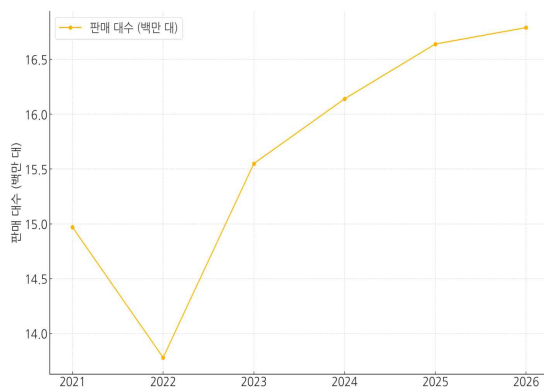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자동차	16.4	31.1	2.7	4.8	-3.2	4.7	-0.4	-9.2	-4.4	4.9
자동차부품	2.4	-1.6	-0.5	-4.8	-2.5	-5.3	-11.7	2.3	-3.6	-6.6
선박류	-20.9	19.9	57.4	4.3	35.7	115.6	-39.8	-36.5	78.8	76.2
일반기계	2.0	4.6	0.4	-4.1	-2.1	-3.9	-8.3	12.6	-5.9	-13.3
철강	5.7	-8.5	-5.6	-14.4	-3.8	-12.0	-24.3	-5.4	-2.0	-3.9
석유화학	-1.4	-15.9	0.0	10.8	7.9	7.6	11.9	18.5	6.7	-0.6
석유제품	64.9	-17.3	4.3	11.5	-2.4	6.5	10.5	15.7	-1.2	-17.8
섬유	-4.0	-11.3	-7.0	-3.1	-2.1	1.4	-11.2	1.2	-5.0	-2.8
가전	-7.4	-1.0	1.6	5.4	-3.4	6.9	-0.3	9.3	-5.0	-13.9
무선통신기기	-10.4	-10.2	-9.8	8.2	38.1	9.3	3.8	53.8	51.3	19.0
컴퓨터	-4.7	-53.3	26.3	58.9	118.9	48.5	58.9	61.7	181.6	132.0
반도체	1.0	-23.7	50.7	53.5	41.4	54.4	50.9	50.2	38.8	37.1
디스플레이	-1.1	-12.1	12.5	19.5	-2.4	15.8	26.0	2.4	-4.9	-4.3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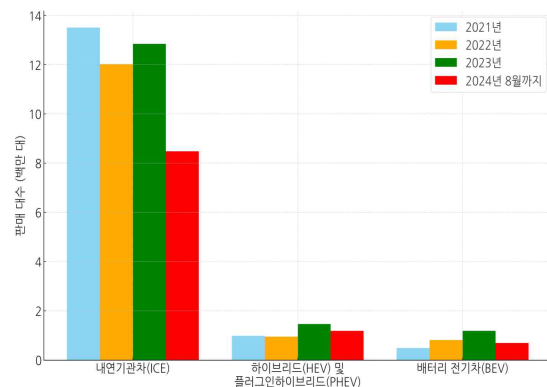
KOTRA(2024년 10월)

-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비중이 2024년 상반기 기준 49.9%로 절반 수준에 달하면서 미국 시장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큰 편
  -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파워트레인별로는 내연차와 전기차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증가세
- 전기차 전환에 따른 캐즘(수요 정체)을 극복하기 위해 각사는 배출가스·연비 규제 충족,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도입하는 전략 추진

〈 美 자동차 연간 판매 동향 및 전망 〉 〈 파워트레인별 미국 자동차 판매 〉



자료 : Marklines.



자료 : Marklines.

## □ 산업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美 대선후보의 공약

- (전기차 의무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등 양당 후보 입장이 유사
  - (분석)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모두 전기차 수요 감소와 일자리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단기간에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영향) 전기차 의무화가 폐지되는 경우, 전기차 확산 속도가 둔화될 것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전환은 불가피하고, 하이브리드차의 완충 역할이 예상
- (자동차 환경 규제) 해리스는 청정에너지지원, 트럼프는 화석연료 확대 주장
  - (분석)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과 연비 목표는 민주당 후보 당선 시 유지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화당 후보 당선 시 연비 목표 하향 조정 등 완화 예상
  - (영향) 공화당 집권 시 규제 완화로 완성차 기업들의 단기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으나, 친환경 혁신 추진 등으로 정책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감축법 및 보조금) 해리스는 바이든 계승, 트럼프는 폐지 주장
  - (분석)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 혜택은 민주당 후보 당선 시 유지

- 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화당 후보 당선 시 축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영향)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더라도 자동차 산업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배터리 제조사들의 수익성 악화 가능
- (對중국 정책) 두 후보 간의 온도 차이는 있으나, 탈중국은 앞으로 지속 예상
- (분석) 對중국 정책과 관련하여 민주당 정책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반면, 공화당 정책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강경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
  - (영향)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産 부품을 대체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

〈 美 대선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 비교 〉		
	민주당 해리스 후보	공화당 트럼프 후보
전기차 의무화	전기차 의무화 지지하지 않음	전기차 의무 명령 폐지 예고
자동차 환경 규제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기조 지속	화석연료 생산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추진 등 환경정책 방향 재설계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및 보조금	IRA 중요성 지속적 강조, 現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유지 전망	IRA는 폐지, IRA에 편성된 예산 중未집행된 자금 철회
對중국 정책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유지, 핵심 기술 물자에 대해서 수출통제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주장하는 등 고강도 탈중국 정책 추진

자료 : 디트로이트무역관.

## □ 변화하는 美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 ○ 전기차 시장의 본격 도래에 대비한 기술력 강화

- 장기적으로 전기차 전환은 불가피한 추세이므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정체기에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수요 창출에 주력

### ○ 친환경 유망 부품 중심의 수출 확대 추진 강화

- 미국 완성차 업체는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친환경 유망 부품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필요










































### ○ 기업 여건에 맞는 현지화 전략 수립

- 美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美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 현지화 추진 필요

### ○ 적극적인 바이어 발굴 및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집중

-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부품사들이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부품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 10.28일 )	( 10.29일 )	( 10.30일 )	( 10.31일 )	( 11.1일 )
	 9월 실업률  10월 소비자신뢰지수	 9월 무역수지(수)  BOJ 통화정책회의  10월 경제제감지수  23.3분기 실질GDP (예비치)  23.3분기 실질GDP (예비치)	 9월 산업생산(잠)  9월 소매판매(잠)  10월 소비자물가(예)  9월 실업률  9월 개인소비  9월 산업활동동향	 10월 ISM 제조업지수  10월 고용보고서  10월 수출입통계
( 11.4일 )	( 11.5일 )	( 11.6일 )	( 11.7일 )	( 11.8일 )
	 10월 ISM 서비스업지수  9월 무역수지  10월 소비자물가	 연준 FOMC(11.7일)	 10월 수출입통계  9월 소매판매	 9월 경기선행지수 (잠정치)
				( 11.9일 )
				 10월 소비자물가
( 11.11일 )	( 11.12 )	( 11.13일 )	( 11.14일 )	( 11.15일 )
		 9월 산업생산  10월 소비자물가  10월 고용동향	 23.3분기 실질GDP (잠정치)  10월 생산자물가	 23.3분기 실질GDP (잠정치)  9월 산업생산(수)  9월 소매판매(수)  10월 산업생산  10월 소매판매  10월 고정투자  10월 산업생산  10월 소매판매
( 11.18일 )	( 11.19일 )	( 11.20일 )	( 11.21일 )	( 11.22일 )
 9월 기계수주  9월 수출입통계	 10월 소비자물가(수)	 10월 무역수지(잠)  10월 생산자물가		 10월 소비자물가  10월 경기선행지수